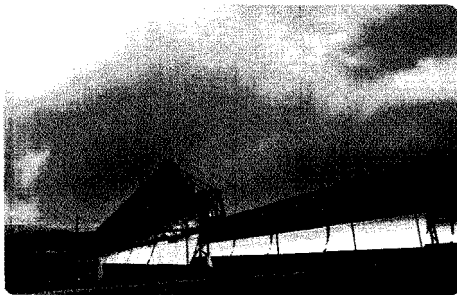


중국의 태양에너지기업, 국제표준 목표 세미나

Intertek 텐샹그룹, 중국 최초 제3자시험기관 지정



▲ 2009년, 중국 태양열업계에 따르면 수출이 지난해 대비 1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태양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제3자인증기관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

중국 최초로 미국, 유럽의 인증서비스를 실시하는 Intertek 텐샹그룹, 태양에너지 제품품질검사센터, 태양에너지협회가 공동으로 품질, 안전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태양에너지산업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경쟁도 치열해짐에 따라 중국 태양에너지 기업들의 국제기준 부합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미나에 참가했던 천우 중국 태양에너지제품품질검사센터 주임은 “중국의 태양에너지산업은 98%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

으므로 반드시 제품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본 세미나가 열리기 전 Intertek 텐샹그룹과 스웨덴 국가기술연구소가 합의를 상호 서명했다. 또한 Intertek은 중국 내 유일한 국제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시험기관이 됐다. 더불어 SolarKeymark 인증으로 기업들은 최고 45%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R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미국에 수출할 때 제품원가 30%정도의 세금혜택을 지원 받는다. 이외에, Intertek텐샹 광조우 태양에너지시험실은 이미 올해 3월에 베이징감형인증센터(CGC)와 협력합의서를 체결했으며, 태양에너지 제품규태양인증의 계약검측기구가 되었다. ‘수출과 내수’를 전부 커버하는 서비스 패턴이 중국 태양에너지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각국 표준, 측정시험항목 중국에서 실현 목표

이 세미나에서는 Intertek텐샹그룹의 전문가가 미국 SRCC와 유럽 SolarKeymark의 태양에너지온수기 수출인증표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베이징감형인증센터-태양인증발급기구의 전문가도 태양인증의 요구사항과 신청순서를 자세히 소개했다. 2009년, 중국 태양열업계에 따르면 수출이 지난해 대비 1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태양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제3자인증기관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 중국 최초로 유럽과 미국전문인증자격증 갖춘 제3자시험기관으로 지정된 Intertek텐샹그룹의 황창 태양열시험실 책임자는 수출인증서비스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제기구와 협력을 전개해 더욱 많은 유럽표준, 미국표준의 측정시험항목이 중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국 기업에게 더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강화된 경쟁력으로 국제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